

KISTEP 통계 브리프 2007-2호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보고서 분석



□ 개요

- The World Bank에서 기업 활동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규제나 규정에 대해 연구
 - 기업활동과 관련된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업 활동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국가간 비교를 통해, 기업 환경 개선 및 발전의 효율성을 얻고자 함
 -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정책입안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
- 2004년부터 보고서가 작성되어 각 년도 부제를 정하여 그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부문을 추가, 수정함
 - 창업(Starting a business), 허가취득(Dealing with license), 고용해고여건(Employing workers), 소유권 등기(Registering property), 융자여건(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교역절차(Trading across border), 납세(Paying taxe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s), 폐업(Closing a business)등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
 - 10개 부문을 종합하여 Ease of Doing Business 지수를 산출, 분석함
- Ease of Doing Business 지수¹⁾ 산출 방법
 - World Bank 회원국이면서 인구 150만명이상 국가 175개국에 대상
 - 세부지표의 (상위) 백분위 순위의 평균으로 10개 부문지수를 산출
 - 계산된 10개 부문지수의 평균으로 Ease of Doing Business 지수 산출

□ 전체 지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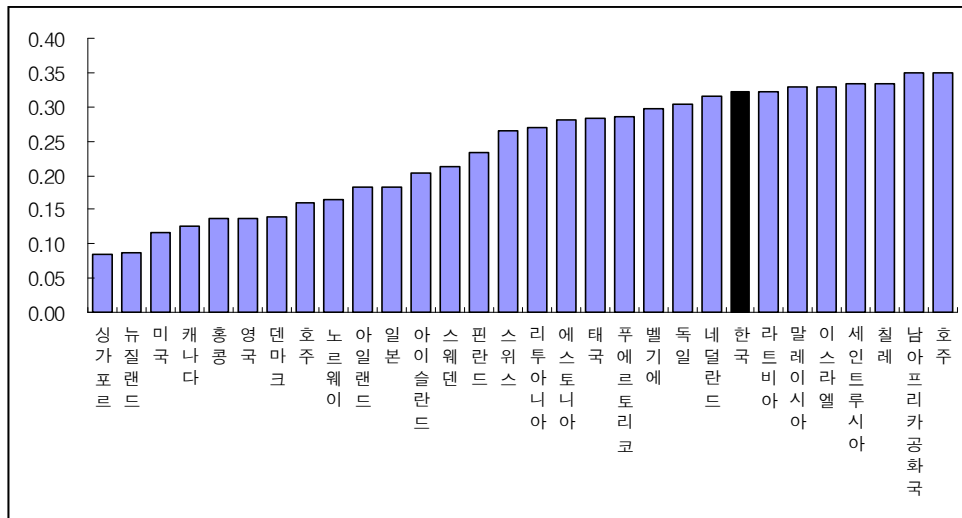
- 싱가포르가 전체 1위를 차지하여 기업 활동하기 가장 쉬운 곳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이 뒤따름
- 한국은 23위로 중상위권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이 낮은 태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푸에르토리코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기업활동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 Ease of Doing Business지수는 (상위)백분위 순위를 사용하므로 지수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음

〈표 1〉 Ease of Doing Business 지수 순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	23	...	93
국가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홍콩	영국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아일랜드	일본	...	한국	...	중국

〈그림 1〉 Ease of Doing Business 지수 (1위~30위)



□ 10개 부문지수별 한국 순위

- 용자여건, 계약 이행, 폐업 등에서는 비교적 상위권을 차지하여 기업 활동 용이성의 좋은 요소로 나타남
- 반면 창업, 고용해고여건, 소유권 등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하위권에 위치하여 기업 활동의 장애요소로 분석됨.
- 2005년도와 비교하면 창업의 용이성은 더욱 어려워진 것(105위→116위)으로 파악되어 창업 환경에 대해 최우선 검토가 필요함

<표 2> 각 부문 한국 순위 (2005~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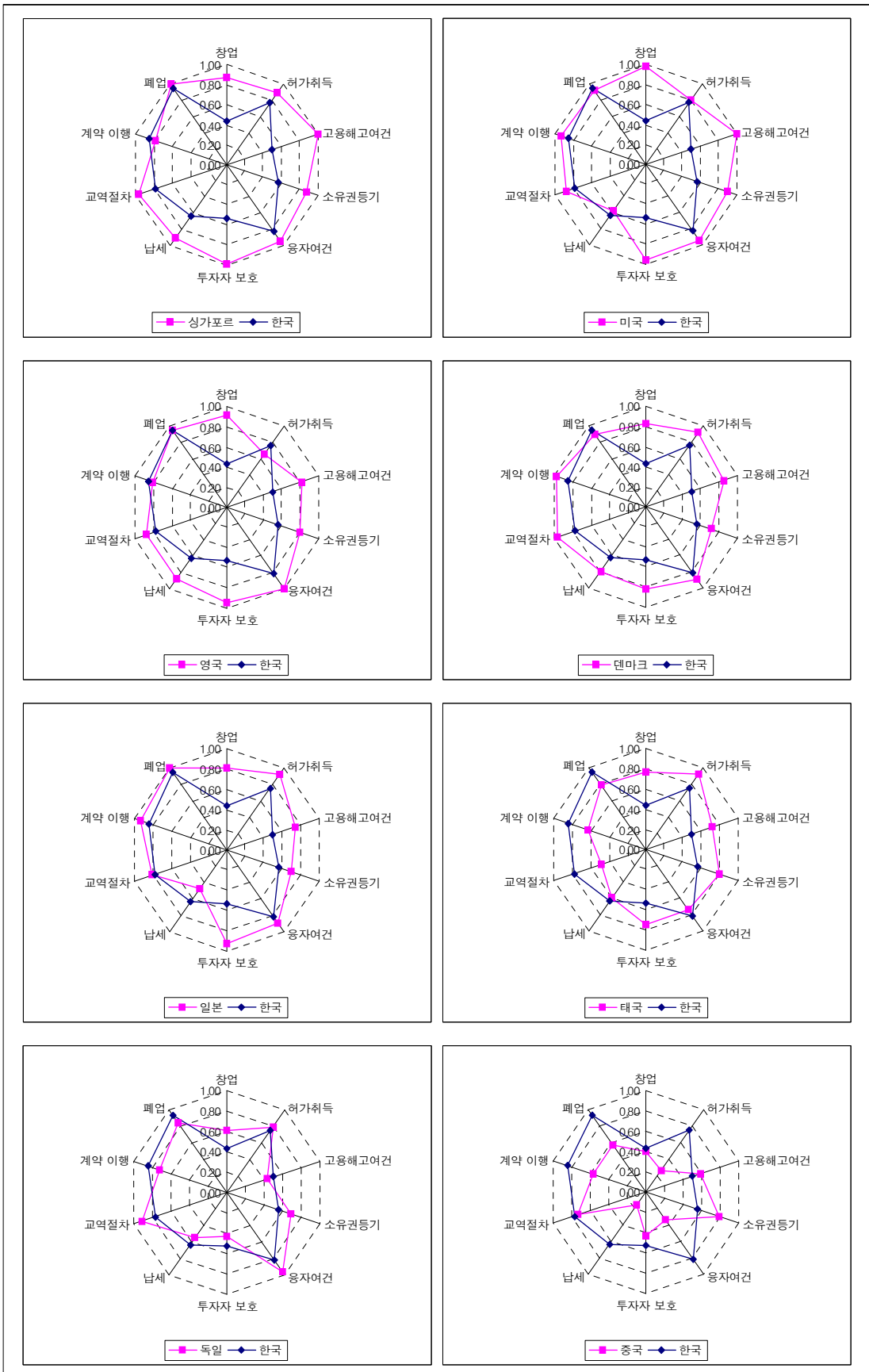
부문	2006년도	2005년도
전체	23위	23위
창업	116위	105위
허가취득	28위	26위
고용해고여건	110위	108위
소유권 등기	67위	65위
융자여건	21위	19위
투자자 보호	60위	58위
납세	48위	50위
교역절차	28위	26위
계약 이행	17위	18위
폐업	11위	12위

□ 주요 국가 비교2)

- 10위권 이내 국가(싱가포르, 미국, 영국, 덴마크등)들은 전체적으로 10개 부문 모두 고르게 높은 편으로 기업 활동 환경이 고르게 좋은 편임
- 일본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업 활동 환경 수준으로 보이고 있으나 고용해고여건, 소유권 등기, 납세 부문에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독일과 한국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융자여건, 계약 이행, 폐업 등은 비교적 높지만 창업, 고용해고여건, 소유권 등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임
- 태국은 그들의 경제력(1인당 GNI \$ 2,750)에 비해 기업 활동 환경 수준은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어 교역절차와 계약 이행 부문의 수준은 낮지만 고용해고여건, 투자자 보호, 소유권 등기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대체로 10개 부문 모두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해고여건이나 소유권 등기 측면에서는 더 좋은 환경으로 나타남

2) 분석의 편의를 위해 지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1-지수)를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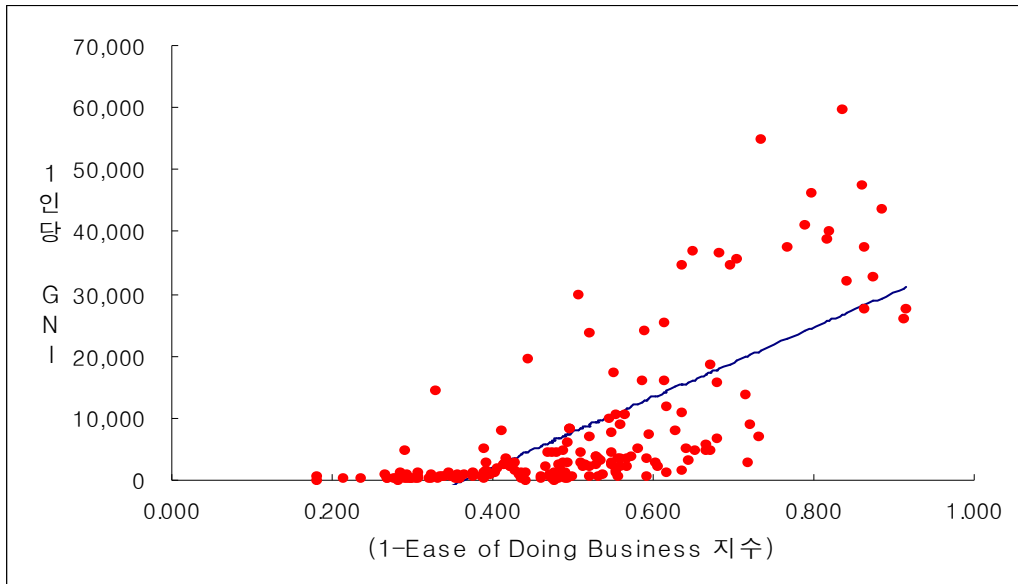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부문지수 방사형 차트



□ Ease of Doing Business 지수와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

- Ease of Doing Business 지수와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1인당 GNI의 상관계수는 0.72로 상관성이 높은 편이고 기업 활동 용이할 수록 대체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높음
- 그러나 비슷한 지수값에서도 경제적 성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기업 활동 용이성과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임

<그림 3> Ease of Doing Business 지수와 1인당 GNI와의 관계



□ 시사점

- 우리나라의 기업 활동 환경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선 창업 환경의 우선적 개선이 요구되며 고용해고제도의 개선, 투자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함
- 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 진단하여 기업 환경에 대한 정책 및 법규의 제정 및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됨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시 국가별 기업 활동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비책 수립이 필요함

* 자료원 :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7 : How to Reform"

* 자료관련 문의 : 혁신지표팀 (02-589-2829, 2949, 2892)